

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자치·교육 분과위원회 주요 제안내용

□ 남해군 향토장학회사업 운영현황

1. 다자녀 장학생 등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건의
 - 가. 특별장학생이나 4년장학생처럼 성적우수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300만원~400만원인데 비해 다자녀 장학생 장학금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큼.
 - 나. 우수 인재양성이라는 향토장학금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나 국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는 있으니 성적위주의 등록금 지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, 다문화,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함.
2. 체육, 과학,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선발 및 지원 필요
 - 가. 남해군에는 특기생 고등학교가 없는데 특기생 선발 기준이 남해군에 소재한 학교로 되어 있어 선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음.
 - 나. 재수생의 경우 대회 참가의 어려움이 있고 대회의 적용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특기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발 기준 및 지원이 필요함.
 - 다. 또한, 특기장학생은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2년제 진학생까지 확대해 주길 요청함.

3. 장학금지원 사업 외 다른 교육사업으로 치중할 필요 있음

가.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공부나 학문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단순히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향토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해외영어캠프, 해외연수, 화전학당 등 다른 교육 사업에 더 치중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로 우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.